

“농가의 임대농원은 건강하고 즐겁다”

소비자와 농가가 공동운영하는 농원

“조그마한 밭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채소를 키워보고 싶다”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놓고 있는 밭이 있다면 이러한 도시 사람들의 희망을 들어 줄 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웰빙 트렌드, 친환경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현대농업』(일본 농문협발행) 4월호에 실린 특집 기사인『농가의 임대농원』 일부를 번역 소개한다.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다.

회사를 퇴직한 후에는 채소를 키운다?

“내가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는, 『정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의 일과표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에 1시간, 그 다음 신문을 보는데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짜보았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하던 중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모토씨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다. 6년 전에 마스모토씨가 보았다는 신문기사는, 노다씨(80세)가 주최한 『제철채소를 맛보는 모임』의 안내기사였고,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노다 농업 교실』을 만들게

되었다. 마스모토씨는 밭족 당시 멤버 중의 한 사람이었고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채소를 직접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는 쌀겨와 왕겨를 같이 섞어서 EM축진화하여 퇴비로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냄새가 나지요”라고 다카오카씨는 말한다. 다카오카씨는 식기류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퇴직 후 이 모임에 참가한 경우이다.

마스모토씨도 다카오카씨도, 이 모임에 참가하

▶ E M (Effective Microorganism) : 유용미생물균 / 일본 沖繩(오끼나와) 琉球(류큐)대학농학부 比嘉照夫교수가 처음 개발하여 이름을 붙인 것으로 자연계에 살고 있는 미생물 가운데 인간에게 유익한 善玉菌만을 모은 액체를 가리킨다. EM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무해한 유산균과 효모균, 광합성 세균균 등으로 구성되어 배양한 것으로, 발효 퇴비축진제로써의 기능이 탁월하다. 현재 농업과 축산업, 수질정화를 포함한 환경산업과 자원회수 및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약 200만세대 이상이 EM을 사용하여 무농약 채소가꾸기, 화단의 퇴비로도 활용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자원리사이클, 웰빙 트렌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기 이전에는 스스로 채소 등을 재배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렇던 것이 현재는, “해충방제에는 죽초액이 좋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해충이 붙지 않지만, 비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맛도 수확량도 별로 좋지 않지요”라고 하며, 해충방제대책과 비료의 가감에 고민을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스모토씨는 근처 이웃의 분량까지 부탁을 받아서 양파를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밭에는 매일 나올 수 없어서 엽채류는 집에서 조그맣게 가꾸어 먹는다고 한다. “시금치, 상추, 부추, 양파, 나물류 등 말 그대로 가정농원이예요. 엽채류는 가정용 프랜터(Planter : 옥내 식물재배용기)를 이용하여 EM처리를 해주기만 해도 아주 잘 자라지요. 좁은 프랜터에서는 손으로 잡아 뽑아내면 다른 채소의 뿌리와 잎이 상하게 되니까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내는 것이 좋아요”라고 한다.

마스야마시의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산 위에 있는 밭은 시내에서 가깝지만 조용하다. 토요일에는 반드시 들러서 밭 이랑을 정리하거나 비료를 주고 있다.

나이 들면 임대농원 체험을...

모임의 대표를 맡아 보고 있는 노다씨는 80년대에 장미의 화분 재배로 상당히 유명했다고 한다.

당시, 보기 드물게 장미꽃이 핀 상태에서 화분 채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를 하였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임대농원』계획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평소 관리가 필요했던 농지를 소비자의 힘을 빌려 지력



▲ 임대농원전경 : 산에 숙박 가능한 숙소를 지어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도 살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의 신선한 먹거리와 채소류를 스스로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임대농원의 운영에는 구성원의 특기도 발휘된다.

결국, 『제철 채소를 맛보는 모임』에는 3일만에 85명이나 되는 참가자가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20명 정도가 현재의 임대농원인 『노다 농업 교실』(能田農業塾)의 중심이 되었다. 현재 인원은 30명. 멤버의 평균 연령은 약 60세이고 80%가 여성이다. 여성이 많은 탓인지 꽃이나 명절과 관련한 이벤트가 많아졌고, 덕분에 노다씨 부부와는 물론 멤버끼리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노다씨에 의하면 이벤트에는 부인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집사람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즐겁게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여성들이 친밀하게 잘 꾸려나가자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모이게 된 사람들의 면면은 실로 다양하였다.

미술 판화선생님도 있고, 사무용품회사의 사장님, 석재회사의 사장님도 있다. 회계사, 사법서사, 전기공사의 전문가도 있고, 허브에 일가견을 가진 분, 여기저기 지리와 역사에 밝은 사람도 있다. “회계사인 후지모토씨는 처음부터 모임의 회계 사무총장을 맡았고, 퇴직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견식과 안목이 높은 후지오카씨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사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된 젊은 무라카미씨는 컴퓨터를 잘하여 『농업 사랑방 소식』을 발행하여 홍보도 하였다”고 노다씨는 말한다.

멤버들의 특기와 회사근무 경험은 농원 가꾸기에도 활용된다. 근처 대학에서 가져온 말뚱과 낙엽과 잡초를 섞어서 만든 퇴비를 숙성시키는 상자는 사무용품회사의 사장님이 조달하여 준 철제폐품으로 만들었고, 공동의 휴게공간은 목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 퇴비상자로 철제폐품을 활용

농가의 임대농원의 매력은 무엇일까?

농가는 소비자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채소밭을 준비할 수 있고, 재배기술도 가르칠 수 있다. 농가

에서는 평범한 밭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이 소비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다. 산딸기, 쑥 등 다양한 산나물과 자생초를 발견하고, 스스로 수확하는 것도 즐거운 체험이다. 필요한 모든 활동을 농가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특기를 발휘하여 공동으로 운영해가면 과정이 더욱 재미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행정이나 농협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 시민농원에는 없는, 농가의 임대농원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80살, 아내가 77살,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친구와 동료가 생긴 것은 임대농원 덕택입니다. 이러한 ‘농업 사랑방 모임’과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내 일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현대농업 2006년 2월호
번역계제 사무처 정재황

